

overStory

도시
문화인프라로서의
야경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8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Contents

IDI Interview

연구/원/소/식



대천시인민정부발전연구중심과 인원교류
대천시인민정부발전연구중심과 인원교류 중국지역 해외교류 연구기관인...

인/천/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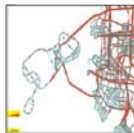


그 섬에 가고 싶다.
인천 연안부두 여객 터미널에서 쾌속선인 파라다이스호에 오른 지 한 시간...



조명조 문화관광체육국장 & 인천시민들과의 만남
우선, 인천시의 문화관광체육국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의 입장에서 '인천의 ...

시/정/연/구



인천시 교통수요 예측
□ 연구 배경 및 목적 ○ 가시...

도/시/동/향



홍콩 A Symphony of lights
히 홍콩하면 높은 산과 빌딩, 거리...

신/간/소/개



국민임대주택백서
2006년은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기...

I ID인/터/뷰

인천아트리에의 세 번째 만남

조명조 문화관광체육국장과의 만남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8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Q 우선, 인천시의 문화관광체육국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의 입장에서 ‘인천의 밤’을 몇 개의 짧은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겠어요?

A 인천의 밤은 “혼돈의 밤”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가지 색깔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같이 어우러지는 혼돈의 밤이라고 할 수 있는거죠. 항구 도시다 보니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 정적이지도 활동적이지도 않은 밤이면서 다 뒤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점차 특징을 가진 밤으로 변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송도국제도시등 경제자유구역은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적이고 수준높은 문화를 만들어 갈려고 하고 있고, 도심과 기성시가지에서도 나름대로 문화나 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자리를 찾아가면서 안정적인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조명조 문화관광체육국장

Q 요즘 사람들은 일을 하거나, 레저활동이나 쇼핑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낮과 밤 구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을 담당하시게 된 후, 국장님의 일과 후 생활모습도 많이 바뀌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A 문화정책을 맡기 전의 저녁시간은 대부분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보냈어요. 그러다보니 야간시간의 여유로움이나 문화생활은 거의 없었지요. 하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직을 지내면서부터는 밤행사가 많아 각종 단체들의 전시회, 스포츠경기, 문화공연 등에 참석하게 되면서 사무일 중심이었던 생활에 이젠 제 나름대로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좋았어요.

Q 지금까지 인천시가 인천의 밤문화를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여한 일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했던 야간문화행사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을 잠시 말씀해주세요.

A 행사는 주간과 야간의 구분이 확실히 나뉘지는 것과 아시안육상대회에서 북측 공연단의 공연처럼 주간에서 야간까지 이어지는 행사가 있어요. 그중에서 최근에 있었던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2박3일동안 치러진 행사로 문화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의 변화된 모습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날씨가 좋지 않아 열악한 환경이었는데도 락을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공연을 즐기고 무사히 치러준 시민들을 보며 행사 준비 기간 동안의 힘들었던 것들을 잊을 수 있었고, 또 그만큼의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저에게는 아주 뜻 깊은 행사였어요.

Q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지향하는 인천시민의 여가활동 및 밤문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불어, 인천의 밤이 밝아지고 시민들의 밤문화가 건전하게 될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A

뉴욕의 맨하탄이나 브로드웨이를 가보면 새벽2-3시가 되어도 밝게 불켜진 호텔이나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점차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업무의 전산화가 되면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어 저녁시간에 친구를 만나거나 일을 하는 모습이지요. 이처럼 우리나라도 일과 후 야간시간에 단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고 공연을 보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이에 발맞춰 저는 인천시민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가지 성격을 가진 공연장이나 전시장등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것들이 한 공간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연/구/원/소/식

2006 여성외제토론회



2006년 7월 4일 화요일

2006 여성외제토론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 인천광역시후원 인천발전연구원주최로 2006 여성외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금번 토론회는 인천시 복지 정책의 여러 영역을 성평등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성인지적 복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복지 정책과 성평등 정책에서 과제가 많은 인천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본 토론회는 인천시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기타규슈시립대학(도시정책연구소)연구교류 실무회의 개최



2006년 7월 13일 목요일

기타규슈시립대학(도시정책연구소)연구교류 실무회의 개최 2006년 7월 13일 목요일 오후3시 인천발전연구원 2층 세미나실에서 본원과 국제교류기관인 기타규슈도시협회 및 기타규슈시립대학과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국제교류 현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타규슈시립대학(도시정책연구소)과의 연구교류 협정체결 사전 의향을 타진하고 연구프로젝트 관련 원고 의뢰 및 자료 요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하였으며, “제9회 공동연구발표회 개최(9안)”에 대한 의견전달을 하였습니다.

[정기연구교류]천진사회과학원방문



2006년 7월 18일~21일

천진사회과학원 방문 [공동연구주제관련 회의][천진사회과학원 방문 기념 촬영] 김창섭 인천발전연구원장의 4명은 2006년 7월 18일~21일 3박4일동안 중국 천진사회과학원을 방문하여 연구교류사업의 공동연구주제 선정 및 추진 방식에 대해 협의하고, 도시현황 설명회 및 시찰을 통해 천진시 발전전망을 조사하여 인천-천진 양도시간 상호 협력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천진사회과학원 원내 시찰 중]

연구기관 정보화 혁신 사례 워크샵

2006년 7월 20일 목요일

연구기관 정보화 혁신 사례 워크샵 연구기관 정보화란 주제로, IT전문가와 정보화 담당자들이 정보화 관련 국내의 우수 실천사례에 관한 사례발표(김한준-삼성경제연구소 지식전략 컨설턴트, 강향숙-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신창근-퍼스트클래스솔루션 차장)를 통해정보를 공유하고, 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인천발전연구원 2층 대회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8월 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의실에서[연구기관 정보화 혁신 사례]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대천시인민정부발전연구중심과 인원교류



2006년 8월 21일~25일

대천시인민정부발전연구중심과 인원교류 중국지역 해외교류 연구기관인 대천시인민정부발전연구중심과의 우호교류 협정 및 공동사업추진협정 등에 근거하여, 인천-대련 양 도시 간 발전을 위한 연구교류 이외에 양 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원교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련을 방문하여 도시 및 산업시찰을 통해 중국 및 대련에 대한 폭넓고 실질적인 이해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인천발전연구원 강승호 한중교류센터장을 비롯한 5명이 대천시인민정부발전연구중심을 방문해 오는 9월14일 대련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된 공동심포지엄과 관련하여 실

무협의를 하였습니다.

행사공지

◆인천발전연구원-국토도시연구원 조인식◆

일시 : 2006년 8월 30일 수요일 오후4시30분

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

◆ 2006 인천광역시 문화정책토론회 ◆

일시 : 2006년 9월 21일 목요일 오후2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인/천/나/들/이

그 섬에 가고 싶다.

교통물류연구실 석중수 연구위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8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인천 연안부두 여객 터미널에서 쾌속선인 파라다이스호에 오른 지 한 시간 남짓 걸려 도착한 승봉도 선착장에서 처음 만난 것들은 민박집들의 소형 승합차량들이었다. 대중교통이 없는 승봉도에서는 선착장과 민박집을 오가는 데 소형 승합차나 트럭을 이용해야 한다.

물론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걸어서 갈 수도 있지만, 승차정원을 훨씬 넘는 사람들이 짐들과 뒤섞여 한 5분 동안 달려야 하는 색다른 체험을 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파라다이스호

승봉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紫月面)에 속한 섬으로 면적이 2.22km²에 불과한 섬으로 섬 둘레가 9.5k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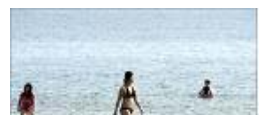
걸어서 섬 전체를 둘러보는데 3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다니 산책을 하기에 적당한 섬인듯하다. 370여년 전에 신씨와 황씨라는 두 어부가 고기잡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 이곳에 정착하면서 이들의 성을 따서 처음에는 신향도라고 하였는데, 그 후 이곳의 지형이 봉황의 하늘을 나는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지금의 명칭인 승봉도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승봉도의 지형

전체적으로 구릉의 기복이 많으나 중앙부는 분지가 발달하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선착장 뒤편에는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섬의 남쪽 백사장 뒤편에서 북동쪽으로 수령 20~30년의 곰솔이 우거져 있다.

승봉도에는 이일레라는 이름이 붙은 해수욕장이 있다. 백사장의 길이가 약 1.3km이고, 폭은 약 40m정도 되는 아담한 해수욕장이다.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 서해의 다른 해수욕장과 달리 썰물때에도



갯벌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단단하고 고운 모래사장 뒤로 울창한 해송 숲이 펼쳐져 있어 산책하기에도 참 좋았다.

해수욕장외에도 승봉도에는 볼 것들이 몇 더 있었다. 승봉도의 해안선은 나름대로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다.

이일레해수욕장

섬 남동쪽 끄트머리에 해당하는 부두치는 돌과 모래, 조개껍질이 섞인 조그마한 돌섬처럼 보이는데, 물이 들어오면 섬처럼 보이다가 썰물 때면 모래톱으로 연결되는 삼각형의 독특한 모양새를 지니고 있다. 이밖에도 부두 끝 소리개산 밑에 있는 촛대바위와 남대문처럼 생겨서 이름 붙은 남대문바위 등이 볼 만한 구경거리다.



작은 벗너머 해안전경



섬에는 콘도미니엄 하나와 다수의 민박집들이 있어 잠자리를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으며, 민박집들은 대체로 최근에 새롭게 단장한 모습들로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민박집들 중에는 최신식 원룸형으로 꾸며놓은 집들도 많았지만, 옛날 가옥을 그대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집들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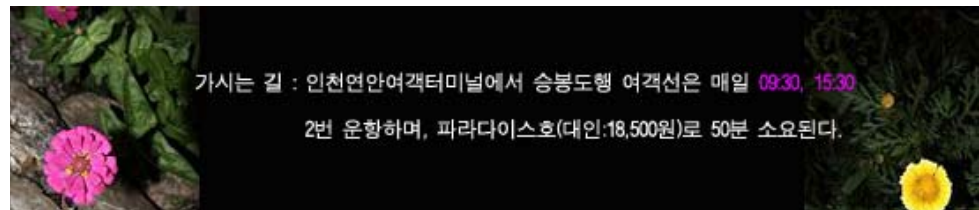
승봉도 민박집

승봉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가는 방법과 대부도에서 가는 방법 두가지가 있다. 연안부두에서는 자월도 가는 배편을 이용하면 자월도를 경유하여 승봉도에 닿는다. 여름 휴가철에는 하루 4편 이상 운행을 하지만, 비수기에는 하루 2편 운행한다. 쾌속선을 이용하여 1시간 정도면 승봉도에 도착하지만, 가는 동안 바다 풍경을 구경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일반 여객선을 이용하면 2시간 이상 바다 풍경을 감상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어 좋다.

섬에는 채송화와 봉숭아가 유난히 많이 피어 있어서 동요 "꽃밭에서"가 저절로 흥얼거려지기도 했다. 그 외에 많은 꽃들이 피어 있어 승봉도가 더 아름답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최근에 외지로 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귀향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승봉도에는 폐가가 많아서 우리나라 농어촌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차 막히는 고속도로를 달려 동해안으로, 남해안으로 가는 휴가도 좋지만, 조용하고 한적한 섬으로 배를 타고 가는 여유 있는 휴가도 나름대로 재미있고 낭만적인 듯하다.

인천에는 많은 섬들이 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많은 섬들에 대한 관광정보가 너무 없다는 것이다. 자월면사무소 홈페이지에는 먼 내 섬들에 대한 관광 안내가 전혀 없었고, 옹진군청 홈페이지에서도 기본적인 정보 외에는 너무 정보가 없었다. 무한한 관광자원인 인천의 섬들을 좀 더 잘 포장해서 알리는 것이 필요한 듯하다. 물론 부족한 정보 덕분에 조용하게 휴가를 보내고 올 수 있어서 좋았지만.....



가시는 길 :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승봉도행 여객선은 매일 09:30, 15:30

2번 운항하며, 파라다이스호(대인:18,500원)로 50분 소요된다.

| 해/외/출/장/리/포/트

| 빛으로 연출하는 도시의 야간 매력, 홍콩 A Symphony of lights

도시경영연구실 심진범 연구위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8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홍 히 홍콩하면 높은 산과 빌딩, 거리의 간판, 쇼핑 천국 등의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세계 3대 야경이라고 하는 100만불짜리 야경을 떠올릴 것이다.

최적의 감상지점이라는 빅토리아피크에 올라 홍콩 섬에 들어선 고층의 빌딩과 빅토리아항 그리고 저 멀리 구룡반도로 이어지는 야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도시가 선사하는 독특한 밤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

이미 세계적으로 이름난 홍콩의 야경은 이른바 빛의 교향곡으로 그 매력이 더해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국제도시 홍콩의 독특한 야간 매력 심포니 오브 라이츠(A Symphony of Lights)이다.



빅토리아피크에서 본 홍콩 야경

도 시가 만들어내는 빛의 교향곡 홍콩의 'A Symphony of Lights'은 기네스월드레코드가 인정한 세계 최대의 빛과 음악 쇼이다. 홍콩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등 홍콩섬과 구룡반도의 33개 주요 빌딩이 참여하여 음향이 가미된 조명쇼를 연출하면서 홍콩 빅토리아항구 일대의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하고 있다. 쇼는 매일 저녁 8시에서 약 20분간 진행되며 야간의 이 일대 집객력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쇼는 다섯가지의 주제(theme)로 구성되어 있다. 표현하는 내용은 홍콩의 에너지와 정신, 그리고 홍콩의 다양성이다.

첫 번째 주제는 "Awakening"으로서, 무지개색과 춤추는 듯한 빛의 정렬을 활용한 레이저 조명을 통해 표현된다. 이는 홍콩의 탄생과 성장을 상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Energy"로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서치라이트(searchlights)와 큰곡선의 레이저조명으로 연출된다. 이는 홍콩의 활기를상징하는 것이다.

세 번째 주제는 "Heritage"로 빅토리아 항구 양측의 참가 건물에 중국 전통의 붉은색과 금빛의 조명으로표현한다.

이때 중국 전통악기를 활용한 음향 효과를 주며, 이는 홍콩의 역사문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네 번째 주제는 "Partnership" 이다. 이는 빅토리아 항구를 비추는 레이저빔과 서치라이트를 활용하여 항구 맞은 편과의 빛의 결합을 통해 표현된다.

마지막 주제는 "Celebration" 으로 조명과 레이저빔의 소용돌이치는 형상을 통해 표현된다. 이는 빅토리아 항구 양측의 긴밀한 협력과 아시아의 월드시티(Asia's world city - Hong Kong)에 대한 더 밝은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다.



홍콩의 A Symphony of Lights 사례

홍 콩의 심포니 오브 라이츠(A Symphony of Lights)를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명소는 구룡반도 침사추이의 스타의 거리 "Avenue of Stars", 완차이의 워터프론트, 그리고 빅

토리야항 일대 크루즈 등 3개소이다. 야간에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고층 빌딩들이 연출하는 빛의 교향곡을 관람하기 위한 관광객이 밀집하고 있다.



쇼에 대한 음악과 해설이 침사추이의 스타의 거리 "Avenue of Stars", 완차이의 워터프론트에서 영어와 광둥어 등을 사용하여 방송된다. 관람객은 이 일대에서 FM을 통해 해설을 들을 수도 있으며, 핸드폰 유료서비스를 통해 들을 수도 있다. 눈과 귀에 그리고 마음에, 잊지 못할 홍콩의 밤을 심어주려는 세심하면서도 치밀한 배려이다.

이미 100만물짜리 야경이라고 칭송을 듣던 홍콩의 밤은 빛의 교향곡 'A Symphony of Lights'를 통해 진화하고 있다. 창의적인 상상력과 관광객에 대한 배려가 국제관광도시 홍콩의 경쟁력을 더해주고 쇼 관람 최적 장소인 스타의 거리 있는 것이

I ID인/터/뷰

인천시민이 본 Night of Incheon

하루를 즐겁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문화공간·행사, 건강프로그램,

멋있는 야경을 보면서 편안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인천의밤...

오늘날 도시는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생활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은 일을 하거나, 영화·스포츠 등 레저활동을 즐기거나, 쇼핑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낮과 밤 구분 없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바쁜 직장생활에서 벗어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게 되면서 보다 즐겁고 수준 높은 야간문화나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야간에 즐길 수 있는 문화나 도시환경의 질은 현대 도시의 질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인천시민들은 밤에 어떠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무엇을 즐기고 느끼고 보고 싶어 하고 있을까? 거리로 나가 인천시민들을 만나보았다.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8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휴일을 맞아 아들과 함께 쇼핑을 나온 이정행씨.
(회사원, 40대 후반, 인천시 연수구)

아들의 손을 잡고 쇼핑하는 모습으로도 한눈에 자상한 아버지라는 느낌을 주는 이정행씨는 저녁시간생활에 대해 묻자 아들과 함께 보내려고 한다고 답한다.

"바쁜 회사생활때문에 아들과 놀아줄 시간이 별로 없어 퇴근 후엔 대부분의 시간을 아들과 함께 보낸다. 집안이나 근처 놀이터에서 놀아주는것도 좋지만 근처에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이나 구청이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문화공연등의 행사가 열린다면 더 뜻깊고 즐겁게 아들과 함께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컴퓨터 그래픽디자이너 김미현씨.
(회사원, 20대 후반, 인천시 부평구)

회사가 서울에 있어 퇴근후엔 대개 직장동료들과 회사근처 호프집이나 영화관을 찾아 그날의 스트레스를 푼다는 그녀. 왜 인천으로 와 저녁시간을 보내지 않는냐는 질문에 "솔직히 인천에는 문화공간이나 쇼핑몰등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할 것이 없어요. 문화센터를 등록해 다니고 싶어도 퇴근후 인천에 오면 강의가 끝나 등록할 수 가 없어요. 시청원에서 시민들을 위해 연 강좌라면 조금 더 늦게까지 운영해주었으면 하는 좋겠어요." 라고 답한다.





인천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며 쉬고싶은 정지훈씨.
(학원강사, 30대 중반, 인천시 계양구)

학원강사인 직업적 성격으로 학기중에는 야간근무를, 방학때 보통 직장인들과 같이 낮근무를 한다는 정지훈 씨. 야간근무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기때문에 일반인들의 저녁시간의 여유로움이 부러웠다는 그는 요즘 아이들이 방학을 하여 자신만의 저녁시간을 갖게 되었지만 막상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

"인천에는 서울의 야경관광문화에 아직 관심을 쏟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항구도시인 인천을 야경으로 가꾼다면 찾고싶은 인천 ,쉬고싶은 인천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중학생인 딸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고 싶다는장봉임씨.
(회사원, 40대 후반, 인천시 남동구)



퇴근후엔 중학생인 딸과 하루동안의 일을 서로 나누고 함께 TV를 보는 것이 다라며 공부에 스트레스 받는 딸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게 없다며 안타까워하는 장봉임씨.

"퇴근후엔 피곤해서 딸아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한다거나 집근처에 좋은 공연이 많이 열리지만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요. 하지만 딸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이나 하루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등을 공원에서 알려준다면 건강도 챙기며 딸과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 할 수 있을것 같아요."

시/정/연/구

인천시 교통수요 예측

교통물류연구실 김종형 연구위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8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 연구 배경 및 목적

○ 가시화된 교통흐름의 문제점, 즉,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체감교통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해 유명무실하

다는

비판도 받아왔음.

○ 위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정책 대안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

수요의 정확한 예측이 요구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장래교통수요예측을 그 주

요목

적으로 하며, 이는 인천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됨.

□ 총통행량

1) 인천시 목적통행지표 예측

○ 2002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신규개발계획이 진행 중이거나, 대규모로 계획되어 있어, 인

구유

입이 대폭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총목적 통행량이 급속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

측

됨.

<표1> 인천시관련 총목적 예측통행량 (단위: 통행/일)

구분	2002	2006	2011	2016	2021
인천-인천	4,316,515	4,871,111	5,941,712	6,042,575	6,216,438
인천-시외	729,448	1,010,801	1,190,134	1,210,331	1,245,143
시외-인천	726,725	1,034,711	1,207,366	1,227,856	1,263,191
총계	5,772,688	6,916,623	8,339,213	8,480,761	8,724,772

2) 인천시 수단통행지표 예측

○ 2002년 기준 O/D와 연도별 예측 O/D의 수도권 총수단통행량을 살펴보면 도보제외-철도

환승

포함의 경우 2002년 577만 통행, 2006년 682만 통행, 2011년 828만 통행, 2016년 842만

통행,

2021년 866만 통행으로 예측되었음.

<표2> 인천시관련 총수단 예측통행량(도보제외-철도환승포함) (단위: 통행/일)

구분	2002	2006	2011	2016	2021
인천-인천	3,593,888	3,965,689	4,864,525	4,947,079	5,089,428

인천-시외	1,072,699	1,408,070	1,690,091	1,718,772	1,768,217
시외-인천	1,099,544	1,449,467	1,722,644	1,751,862	1,802,280
총계	5,766,131	6,823,226	8,277,259	8,417,713	8,659,925

○ 또한 도보제외-철도환승 미포함의 경우 2002년 524만 통행, 2006년 622만 통행, 2011년 752만

통행, 2016년 765만 통행 2021년 787만 통행으로 장래 통행량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표3> 인천시관련 총수단 예측통행량(도보제외-철도환승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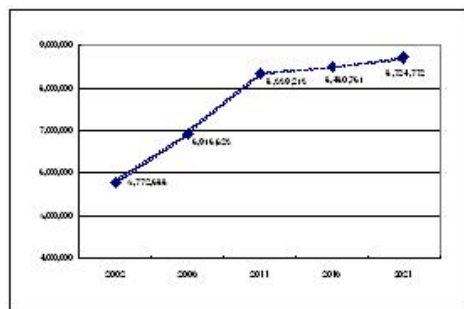
(단위: 통행/일)

구분	2002	2006	2011	2016	2021
인천-인천	3,533,171	3,896,338	4,777,392	4,858,472	4,998,266
인천-시외	849,158	1,147,599	1,367,981	1,391,202	1,431,218
시외-인천	857,204	1,172,034	1,379,584	1,402,987	1,443,362
총계	5,239,533	6,215,972	7,524,957	7,652,661	7,872,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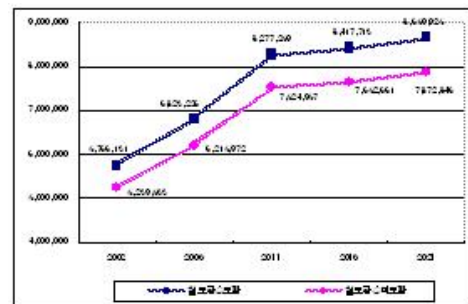
○ 5년 단위로 예측된 각 장래년도의 인천시관련 수단통행을 인천↔인천, 인천↔시외로의 유출입

통행으로 나누어 2002년과 장래예측년도들의 결과를 비교하면 2002년에서 2011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완만한 패턴이 유지되면서 지역별 통행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림1>연도별 총목적통행 예측
<그림2>총수단 예측통행량(도보제외)



□ 결론 및 제언

○ 20년 동안 인천광역시에는 송도신도시, 영종도, 청라지구 등 각종 개발 계획과 도로 개설계획이 줄

을 잇고 있음. 따라서 급격한 토지이용변화와 그에 따른 교통수요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인천시 「교통수요추정」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통행량 지표 등을 객관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교통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들이 단지 도로 및 교통시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인구 및 도시 관련정보를 종합화한 지리정보시스템(GIS)등과 연계된 교통데이터베이스 확보

가 필수적임.

○ 장래 대규모 교통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많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해당지역을 경유

하는 대용량 교통시설 즉,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시설공급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물론

이러한 계획은 인천시의 장래 도시철도망 구상과 병행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장래 인천시
도시

철도망 구상 계획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됨.

○ 향후 예정된 가구통행실태조사 과업과 맞물려 인천시 교통수요 예측 과업도 지속적으로 검
증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요예측이 2005년 상반기 과제인
교통

수요추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누락되었지만 이 부분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과제로는 본 연구에서 수행되었던 수요예측결과를 이용하여 향후 대중교통망의 변화
에 따

른 수단간 수요변화 등의 연구가 시나리오 별로 분석되어야 할 것임.

시/정/연구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 현황과 문제점, 효율적 관리방안

환경생태연구실 김성우 연구위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8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1. 들어가며

인천연안은 우리나라에서 갯벌 생태계가 가장 우수하며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1960년대 이후 수출 주도 경제성장을 위하여 해외교역에 유리한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공업항, 도시용지 및 농경지 등의 조성을 위한 매립·간척 등을 추진해온 결과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실정이다.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는 방안 중 하나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해양관련 보호구역제도는 주로 수산자원의 보호·육성과 해안해상국립공원에 관한 관리정책이 대부분이었으나 1990년대 말부터 습지보호지역, 해양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제도가 제정되면서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에서 제각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관리하고 있다. 현재 지정·관리 중인 해양보호구역은 해양환경보호라는 주된 목적에 대부분 충실한 상태이나 지정 과정이나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는 명목상의 보호구역인 경우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제도의 기본 방침과 원칙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문제점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은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환경관리해역 중의 특별관리해역, 문화재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강화군, 서구, 중구, 옹진군, 연수구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2001년 해양수산부에서 생태계 가치 및 자연경관이 우수한 강화도 갯벌을 인천연안 최초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 하였으나 지역주민·이해당사자 및 강화군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후 2003년 12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옹진군 장봉도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같은 해 옹진군 대이작도 주변해역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 외에 2002년 11월에 영종·영흥도 갯벌을 인천광역시에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추진지역(임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고 2004년 11월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하였으나 영종지역 주민의 다수가 재산권 규제 등을 이유로 반발해 무산되었으며 최근 영흥·선재 지역의 지정을 우선적으로 재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전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보호구역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지정과정에서 각종 규제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 토지소유자와 주민간의 갈등,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을 선호하는 주민과 환경보존을 선호하는 주민간의 갈등 등이 더욱 심화되며 심지어 지역공동체와 생활근거지가 파괴되어 해안 전통문화가 소실될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기존 해양보호구역의 경우 중앙정부의 선(先)지정 행정에 의해 해당 지역의 생태환경메커니즘 등 지역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관리계획 및 관리지침이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인근 지역 어업선박의 난입·남획, 관광객 및 외부인의 무분별한 갯벌 출입으로 인한 갯벌 훼손, 바다모래채취 허가 등으로 인한 하벌천퇴 훼손, 해수욕장 주변의 음식점을 비롯한 관광편익시설의 무분별한 허가 및 입지, 각종 해양생태계 파괴 등이 심화되고 있다.

3.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첫째, 정책수단관리 측면에서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지정목적의 결여 및 관리주체의 혼동 등으로 인한 각종 갈등을 저감한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내 생태·퇴적물·수질 등의 환경조사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생태환경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인근 해양보호구역과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보다 체계적인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사업관리 측면에서 이해당사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해양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보상 및 생활권 보장사업, 오염물질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한다. 해양보호구역 내 지역주민 인터뷰 결과, 주민지원 사업계획 중에서 특히 패류종묘사업의 지속적인 지원과 소규모 갯벌생태계 체험학습장 개발사업 등을 선호하고 있었다.

셋째, 운영관리 측면에서 지역주민이 관리 운영 및 주체자의 역할을 선도한다는 인식을 제고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해양보호구역 지정지역의 소득증대와 생태계 보호를 위하고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정비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연안 생태마을 컨설팅을 도입·지원한다.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8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신/간/소/개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설치된 1999년 이래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보다 선진화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역동하는 글로벌 지식8228;혁신 경제강국'으로 발전하는데 이바지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 경제의 장기 비전과 주요정책 과제를 광범위하게 다룬 종합전략보고서. 본 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그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 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과 10년 후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두 번째 부분에서는 향후 경제운용에 있어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10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이들 과제의 현황과 향후비전,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정책의 우선 순위를 설...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 분석 - 상호관계와 사회적 의제 형성을 중심으로



은수미.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 노사관계에서 사회적 대화 및 사회협약을 중요성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된 연구의 결과 보고서. 먼저 관련 기존 연구를 검토해 보고 사회적 대화의 최소조건은 무엇인지 살펴 본 다음,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을 설정하여 이와 관련된 외부적 요인, 포괄성과 쌍방향성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두드러지는 특징으로서 지역8228;업종 수준에서의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점을 지적하고 울산, 순천에서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민임대주택백서

박신영, 권치호. - 주택도시연구원

2006년은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한지 8년이 지난 시점으로 중반에 접어든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현황 파악을 위해 제작된 백서.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도변화가 사실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국민임대주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주택정책의 수단이 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